

기록적 폭염 속 군민 보호 총력 적극 행정 문화 확산 ‘앞장’

무주군, 온열질환·농작물 피해 예방 현장 지도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이 군민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농작물 피해 방지 등을 위한 현장 지도에 힘을 쏟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지도·연구직을 비롯한 읍면 상담소장, 온열질환 예방 요원 등 34명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각 읍면 마을을 돌며 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홍보물과 벚쿨러, 쿨토시, 쿨타올 등으로 구성된 폭염 예방꾸러미를 배부하며 폭염특보 시 농업인들이 꼭 지켜야 할 기본 수칙부터 온열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등을 공유하고 있다.

사과 일소 피해 방지를 위한 갈솔제 살포, 미세 살수, 햇빛 차단망 설치, 고온기 고추 수경 불량, 낙과, 석회 결

핍 예방 안내 등 폭염으로 예상되는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도도 병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2일부터 12개 마을 4백여 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을 추진했으며 농업인단체협의회 핵심 리더 대상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도 완료했다.

이 외에도 각 읍면에 온열질환 예방 현수막을 걸고 폭염 예방기프트 및 홍보전단 배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농업인 단체 관련 각종 행사에서도 온열질환 예방 파로몬스를 벌이고 있다. 6개 읍면 58개 마을에서는 농작물 생육 관리 홍보 및 지도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지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주읍 도시계획도로 배수 개선 사

업' 등 37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28일까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 조치 여부 및 안전 상황을 점검한다.

6개 읍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1,457명에 대해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매주 2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위험군 8백여 명에 대해서도 매일 안부와 건강을 챙기고 있다. 독거노인 장애인(응급대상 2,732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현재 무주군에서는 각 마을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172곳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 중이며 그늘막과 안개형 냉각시스템 등 폭염저감시설 47곳도 운영하고 있다.

총 7대의 살수차를 하루 2~3회 각 읍면에서 운행(~9월 말)하며 지열을 낮추는 등 한낮 무더위에 대처하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무주군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제언(공무원)과 우수부서를 선정했다.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제언(공무원) 및 우수부서 선발은 조직 내에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해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군민 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 제언(공무원)은 총 5건으로, 실제 현대로템 투자를 성사시킨 '무주에서 우주로, 대한민국 미래로 현대로템(주) 투자유치로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 중심 도시 도약'과 '무주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확정' 건으로 무주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구조 혁신의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꼽혔다.

또한 인사 경영 전진상 및 가산점 확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 건은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을 높여 조직문화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무주안성낙화놀이 유료 관광 상품화 성공은 지역 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를 통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해 인정받았다.

'전문 의료 확충으로 의료공백 해소 및 군민 건강권 확보' 건은 의료인력 확보를 통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군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적극행정 우수부서로는 '전국 최초! 전 군민 대상 무주형 기본소득'을 실현한 기획조정실이 선정됐다.

무주형 기본소득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물론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정책 모델로 인정받았으며,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선정의 토대가 됐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 무더위쉼터·폭염 취약현장 점검

장수군은 지난 3일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 무더위쉼터와 폭염 취약계층 가정, 야외작업 현장 등을 직접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군은 이정우 장수부군수가 지역 경

로당과 폭염 돌봄 가정을 방문해 폭염과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군수는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찾아 냉방기기 가동 상태와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정우 장수부군수가 지역 경로당과 폭염 돌봄 가정을 방문해 폭염과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살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낮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하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폭염 돌봄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와 냉방기기 작동 여부 등 생활 여건을 살피며 안부를 확인했다.

이 부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상자별 보호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야외작업 현장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충분한 휴식시간과 식수 제공, 기온을 고려한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당부했다.

여기에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영농작업 자체 계도활동 현장도 점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기장군 청소년 교류 수련활동 진행

무주군 청소년들이 부산 기장군을 찾아 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며 영호남 우정을 쌓는다.

무주군은 8월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원에서 '제45회 무주군-기장군 청소년 교류 수련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호남 청소년들의 화합과 교류를 위해 무주군과 기장군이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두 지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등 청소년 60명과 인솔자 10명 등 총 7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기장문화예절학교 일교



를 시작으로 울주해양레포츠센터에서 패들보트와 생존수영, 모터보트 등 해양레포츠를 체험하고, 씨라이프 부산 아쿠아리움과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정관청소년센터 등을 방문하며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열려

장수군은 지난 3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민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전략수립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4년간 장수군의 지역사회보장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군민의 복지 요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제6



기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주민 목소리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열린 전략수립 워크숍에서는 참석자들이 분임별 토의를 통해 장수군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제6기 중점과제와 세부사업을 발췌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 참가 업체 모집

장수군은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추진위원회가 오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장수읍 의암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의 부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간식 부스 19개 △공방 체험 부스 9개 △푸드트럭 4개 △포장마차 2개 △홍보 부스 10개 등 총 44개 부스이며 오는 7일까지 모집한다.

축제의 모든 부스 운영자는 장수군 관내 업체와 단체를 우선 선정하고, 모집 인원이 미달할 경우 관외 업체와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간식 부스는 식음료 취급 품목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또는 행사 기간 중 임시영업허가증 발급이 가능한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주류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허가를 보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임시허가를 받아야 한다.

홍보부스는 각종 정책 및 시책 홍보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공공성을 갖춘 홍보부스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공방 체험 부스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진흥특례마을 등 마을 만들기 사업장과 개인 운영자, 공예 및 수공예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추진위원회가 오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장수읍 의암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의 부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간식 부스 19개 △공방 체험 부스 9개 △푸드트럭 4개 △포장마차 2개 △홍보 부스 10개 등 총 44개 부스이며 오는 7일까지 모집한다.

축제의 모든 부스 운영자는 장수군 관내 업체와 단체를 우선 선정하고, 모집 인원이 미달할 경우 관외 업체와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간식 부스는 식음료 취급 품목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또는 행사 기간 중 임시영업허가증 발급이 가능한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주류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허가를 보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임시허가를 받아야 한다.

홍보부스는 각종 정책 및 시책 홍보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공공성을 갖춘 홍보부스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공방 체험 부스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진흥특례마을 등 마을 만들기 사업장과 개인 운영자, 공예 및 수공예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청년농업인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진안군은 청년농업인의 창의적인 농산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진안군 청년농업인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최근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진안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며, 공모 분야는 스마트농업, 가공·유통, 농촌융복합, 농업서비스 등으로, 농업현장에 실제 적용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으로 방문 및 이메일(coway3179@korea.kr)로 접수하고, 이후 1차 서류심사를 거쳐 9월 7일 발표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